이긴자 일대기

: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89회〉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데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다

11절 :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벗다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3) 빛의 하나님이 왜 육신을 벗어시고 환원하셨을까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겠다!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지난호에 이어서)

"나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버립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에 가서 이 역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명령을 했어도 이 사람은 한국 제단에 이 사람이 없어도 꾸준히 나온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버리고 일본 땅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땅으로 가는 걸 보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일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나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국 땅에서 이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 한국 땅에서 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 이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일본 땅 갔죠.

이 사람 일본 땅 가면요 일본 사람들 전부 우리 제단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미는 것도 이 사람 압니다. 그러면 일본 땅에서 하면 이 사람 육적으로 편안하고 힘 안 들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위해서 충성을 하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바쳐서 일하는 여러분들을 볼 적마다 이 사람은 눈물겹게 봤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던지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시가 바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면 하나님이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답답하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언덕을 올라갈 때에 힘들죠.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든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이 역사를 한국 땅에서 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땅에는 마귀당이 되는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서 이 역사를 하려면 말로 할 수 없이 힘든 겁니다.

하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들의 외침 – "이 사람 석방시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시키는 데 이 사람이 노력했다는 걸 알죠.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것도 이 사람이 힘을 썼다는 걸 알죠.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먹기 위해서 선거자금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런 짓은 안합니다. 바로 정권을 쥐고 움직이는 대통령을 이 사람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에 이 사람이 가석방 되어서 나왔죠. 그 대통령 승인 없이는 이 사람 석방이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람을 내보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나왔더라면 이런저런 죄목 붙여가지고 또 징역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역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단에 수놓는 김순자 권사에게 가서 얘기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당신 축하라고 수를 놔가지고 갖다 줘라. 바로 18일날 투표를 하면 17일날 갖다 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17일날 일산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사가에다가 찾아가서 갖다준 거죠. 그걸 갖다주니까 감사하다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 되는 이희호 여사가 영수증을 써서 줬죠. 그 수를 놓아가지고 대통령 투표도 시작도 안했는데 '당선축하'라고 수 뜬 것을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저녁 지나는 것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올 때죠. 그때에 그 수를 놓아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런데 당선이 되면 즉시 이 사람을 석방시킬 줄 알았지만 우리 식구들은 바로 즉시 당선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석방시키려고 김대중 대통령은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장관이다 국장이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교인입니다. 교회 나가는 예수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석방시키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을 대통령한테 한 겁니다.

"야, 세상에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멈추는 걸 보고 나는 놀랬다."

대통령 혼자서 내보내려는 마음이 있어도 못 내보냈던 겁니다. 반대에 부닥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다 내다보고 형무소 안에서 교도소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질 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일 났다는 겁니다. "내가 비를 멈춰줄 테니까 당신 나를 가석방 신청을 해줄래?" 조건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 걱정 말어 한번 해봐." 비가 그렇게 억수 같이 쏟아지는데 그걸 멈추리라고 하는 건 믿지를 않은 겁니다. 믿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해볼 테니까 내가 만약에 비를 멈추지 못하면 나를 계속해서 가석방 신청도 하지 마라. 그 거짓말쟁이를 가석방 신청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걱정 말어!" 내가 들어가서 자는 척하면서 비를 멈추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시도 안돼서 비가 멈추는 거야. 그 사람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한테. "야, 세상에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멈추는 걸 보고 나는 놀랬다. 참 당신 능력이 대단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징역살이를 오래 하고 있느냐. 내가 당신을 가석방 시키는 데 앞장서서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석방시킨다고 운동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사람 가석방시키는 데 조금도 영향을 미친 게 없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석방 신청할 때에 이 사람도 교도소에서 가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가석방 된다는 결정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은 내가 하긴 하는데 가석방 결정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걱정 마쇼, 신청만 해줘. 결정을 하고 안하는 건 결정권자가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정권자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 실력으로 석방된 거죠. 다른 사람 힘 빌린 거 없어요. 이 사람 능력으로 한 겁니다. 그대로 결정권자가 가석방 신청되면요 일곱 사람인가 여덟 사람이 가석방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 중에서 한 사람만 거부해도 석방이 안 됩니다. 여덟 사람이 몽땅 석방을 해도 좋다고 찬성을 해야 그래야 석방이 됩니다.

여덟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니까 이 사람이 잠이 오겠어요. 가석방 신청돼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심사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심사위원들 한 사람 한사람 집집마다 찾아간 겁니다. 이 사람 분신이 찾아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마음을 지워버리고 이 사람은 죄 없이 징역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사람이 석방시킨다는 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0년도 8월 15일날 가석방 결정이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구세주는 분신 능력으로 사람 속의 마귀 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 사람을 석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석방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한테 석방시키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도 자기 혼자서 석방을 못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각 국장들이 석방심사위원입니다. 8명의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줘야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분신이 8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빨갱이 사상이 들어 있는 40억 공산주의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공산주의의 사상을 끄집어내가지고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민주주의 사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일제히 "나, 공산주의 싫다!" 하게 되니까 이 지구 땅위에는 공산국가가 없어진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진짜 구세주야, 가짜 구세주야? 다른 거를 하였다면은 구세준지 구세주 아닌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념 사상을 끄집어내서 없애버릴 정도의 능력이라면 사람의 영이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의 마귀의 영을 끄집어내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보여요, 안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틀림없는 구세줍니다.(2003년 2월 16일 설교말씀 중에서)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① 정도령 출현으로 공산주의 몰락

20세기 말에 공산주의 몰락이 어떻게 해서 구세주 정도령(正道令)의 전지전능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냉전체제 해체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199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지만, 그 배경에는 고르바초프의 심령을 조종하고 이끌었던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 이데올로기의 양극체제에서 공산주의를 먼저 제거했다고 해서 서양의 민주주의가 지상천국 실현에 적합한 이념일 것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지상천국에는 영생(永生)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성립하는 오직 하나의 이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는 정도령 사상은 공산주의이니 민주주의이니 그러한 상대적인 이념을 초월해서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철학이요,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이념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라는 자유율법은 인류의 뿌리를 밝힌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를 영원무궁토록 지배할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사람이 신(神)이요, 만물이 신(神)이다'라는 기치를 앞세운 정도령의 출현은 무신론(無神論)을 고수하는 공산주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필연을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도령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없앴다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방(글라스노스트)과 개혁(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추진했던 고르바초프를 출생부터 소련의 초대 대통령 권좌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② 냉전체제의 종식을 위한 미·소 정상회담

1980년대 중반에 정도령은 단상에서 예배 도중에 오른팔을 힘차게 치켜들고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고르바초프 너, 레이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1985년 11월 19일, 20일 양일간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985년 3월 10일 체르넨코의 사망으로 그 다음 날(11일) 고르바초프가 당서기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12일 제네바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축회담이 열렸는데, 소련의 군축회담 대표단은 체르넨코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본국의 훈령을 받고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15〉

(지난호에 이어서)

[예] 증일아함경제 7권 安般品(안반품)의 2 (1)

爾時世尊告諸比丘 二人出現於世甚爲難得
이시세존고제비구 이인출현어세심위난득
云何二人 所謂如來至眞等正覺 出現於世甚爲難得
운하이인 소위여래지진등정각 출현어세심위난득
轉輪聖王出現於世甚爲難得
전륜성왕출현어세심위난득
此二人出現於世間甚爲難得
차이인출현어세간심위난득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길, 두 사람이 세상에 나오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인가? 이른바 여래지진등정각을 이루신 분인데 세상에 나오기가 무척 어렵고, 전륜성왕이 세상에 나오기가 무척 어려우니라. 이 두 사람이 세상에 나오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니라.

해설 : 신(神)들의 세계에서 인가는 이렇듯 냉정하고 어려운 연단을 거치고 잠시도 방심할수 없는 시간을 거쳐 이루어진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라 "좋아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 "죄(罪)"라고 하신다. 즉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야 무아(無我)에 이를 수 있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연단을 거쳤어야 했던 것이다.

이런 연단 고정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패한 후 6000년의 시간 동안 당하고 겪으면서 마귀가 현재 인간들의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아시기에 미륵보살에게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극한의 수련을 겪게 하셨으며 이것은 최고의 비밀이기에 입 밖으로 뱉을 수도 없어 미륵보살이 스스로 깨달아 그 비밀을 알아야 했다.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15〉

지신(地神)이 성불 선언(成佛宣言)을 하다 –4

이 밀실에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살아서는 세상에 나갈 수 없으니 목숨을 끊어버려 끝장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긴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그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짓이기게 되니 밀실 안에서 계속해서 소변으로 피가 쏟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처음에 밀실에 입고 들어간 옷은 헐거워 입지 못하게 되었다. 한동안 짓이기는 생활을 하게 되니, 몸은 가죽과 뼈만 남아서 얼굴도 핼쑥한 상태로 되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은 환자로 보았겠지만 구면인 자는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자유율법을 범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고 매달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80년 2월 초에 "이긴자가 되었다."

석가모니는 선정으로 보고 미륵보살의 연단 과정을 불경에는 이렇게 기록했다.

[예] 증일아함경 11권(增壹阿含經) 선지식품(善知識品)제 20 제2

彌勒菩薩 經三十劫 應當作佛
미륵보살 경삼십겁 응당작불
至眞等正覺 我以精進力 勇猛之心
지진등정각 아이정진력 용맹지심

미륵보살이 30겁이 지나면 반드시 참된 평등함의 바른 깨달음으로 부처를 이루는데 용맹스러운 마음으로써 정진한 힘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과정은 말로써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으며,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인간의 말은 표현에 제한이 있고 사망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범주의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차원에 해당되는 용어가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떨어져 목을 매고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출발을 하여 죽음보다 더 힘든 연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난 다음, 1980년 10월 15일에야 해와 주님께서 "네가 이제는 이긴자가 되었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제가 이긴자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기시어 하나님께서 이긴자가 되셨지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 "또 이긴자가 되었다."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기시고 이긴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하였다.

해와 주님께서 "조사장이 이제 잘 이기는데." 하시므로 "제가 잘 이기나요, 하나님 당신께서 조희성이를 점령하시고 계속 이겨 나가시지요.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후 하나님께서 완전히 조희성이를 죽이는데 성공하시고 점령하게 되니 이날이 1980년 10월 15일인 것이다.

피골(皮骨)이 상접(相接)한 부처 _ http://dongascience.donga.com/print.php?idx=4660

해와 주님이 이긴자가 됐다고 하신 후 그 날 저녁에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조희성 마귀를 죽이시고 완전히 점령하시기까지의 내용을 간결하게 노랫말로 지어 30분 동안에 수정도 하지 않고 써서 밀실에 있던 식구들과 같이 찬송을 하게 되니 해와 주님을 비롯한 식구 전체가 울어 밀실이 울음바다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 가사 내용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해와를 잃으시고 탄식하시는 기막히도록 곤고한 사정이 억만분지 일도 표현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것이다.(다음호에 계속)* 明鍾